

# Contents

04	특별기획	바르고 강한 공군, 새로운 공군을 위해
08	기획특집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한눈에!
14	추석특집	간단·건강·특별한 명절 음식 차려보자!
<hr/>		
20	특별기고	군은 장병과 시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SBS 김태훈 기자)
22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9화 김종삼(金宗三) 시인 편
28	내 옆의 공군인	국립항공박물관 오원재 학예연구사
34	우리 부대는	공중전투사령부
38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공군인들의 추석 풍경(자토 작가)  
표 지(뒤) 달에 공군기지가 있다면?  
디 자 인 병장 황현동(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발 행 일 자 2021년 9월 1일(통권 제519호)  
발 행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최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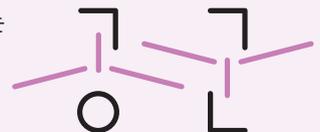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1080333)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44 **고운말 사용 독후감대회 최우수작** ‘무엇을 말할까?’가 아닌 ‘어떻게 말할까?’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 일병 추준오)
- 46 **한 달, 한 권** 독서법
- 48 **명상을 말하다** 자애명상
- 50 **영화로운 나날** 시절인연을 기다리는 당신을 위해
- 52 **트렌드가 보인다** 코로나 고통 분담으로 브랜드의 격을 높이다

- 
- 54 **생각하는 그림** 값은 71년 전 이미 받았습시다
- 56 **공군인의 편지** 멍하니 땅만 보다가  
(15특수임무비행단 장비정비대대 병장 박민우)
- 57 **책읽는 공군** 네 자신을 알라  
(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 중위 강금구)
- 58 **수용의 미학** 여유
- 59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 바로고 강한 공군, 새로운 공군을 위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로고 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모총장 직속의 특별조직이 신설됐다. 이번 호에서는 신설된 공군 병영혁신센터를 소개한다.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장병들의 떨어진 사기를 높여 공군인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새로운 공군을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십니까? 공군 병영혁신센터(이하 ‘센터’)입니다. 저희는 지난 8월 1일 참모총장 직속조직으로 신설된 특별 부서입니다. 부서 명칭 그대로 공군의 병영혁신을 이루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계급과 신분을 떠나 누구나 건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듣겠습니다. 초급간부와 여성인력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지휘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공군의 정책과 제도, 조직문화에서 개선 사안들을 발굴해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센터는 지금까지의 군 내 조직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를 새롭게 꾸며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이고, 담당자들의 직능 또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업무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는 바로 공군 장병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고민거리, 건전한 발전 방향, 새로운 제언들을 듣고 이를 종합해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센터원들은 ‘당신은 소중합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르고 강한 공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바로 서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있을 공군 장병들이 보다 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공군 장병들이 쉽게 손을 내밀 수 없다면, 손을 건네는 조직이 되려고 합니다.



센터는 최우선 과제로 공군의 신고/상담 전화를 하나로 모아 대표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일명 ‘공군 신고전화 7979’인데요.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던 신고와 상담전화를 통합해서, 공군 어느 부대서든 ‘7979’만 누르면 모든 분야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서에서 신고와 상담전화를 운영해 왔지만, 전화기를 들었을 때 바로 번호를 누를 수 있을 만큼 기억에 남는 번호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위기에 처한 장병과 군무원들이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전화를 통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고전화를 통합하면서 ‘병영 내 애로 사항 건의와 신고’도 가능하도록 포함시켰으며, 익명으로 건의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병과 군무원들이 ‘7979’로 전화를 주면, 병영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부서에 관련 내용만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련된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유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고민도 전화를 주신분의 편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 해도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말 하니깐 바뀐다’는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79’ 외에도 몇 가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소통’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 주관으로 병영생활 관리요원과 각 계층 대표자 간담회를 매월 1회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 직접 참모총장에게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화로 찾아가는 1:1 병영생활 도움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하부대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병영생활 노하우를 조언하고, 애로사항이나 고민거리를 들어주며 초급간부들이 부대생활 적응을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센터에서 하루 약 30여 명 정도의 인원을 선정해 상담간부들이 개인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24시간 운영 부서, 산재생활관이나 통제구역 등 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부대 방문도 계획 중입니다. 센터가 부대를 직접 방문해 기존의 정책과 제도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초급장교단도 창설합니다.



병영혁신센터 사무실 회의

다. 공군에 다양한 신분과 단체 대표가 있지만, 위관장교는 대표가 부재해 원활한 소통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위관장교들은 특히, 사무실에서 많은 업무를 도맡고 있지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초급장교단 운영을 통해 초급장교들의 목소리를 부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기 위해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분과 계급, 병과와 특기를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병사는 업무보조 역할이 아니라 병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담당자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또 조종, 법무, 군사경찰, 보급수송, 인사교육, 공보정훈까지 공군의 다양한 병과가 한 데 모였습니다.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접근법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병영혁신센터장 이진호 대령 인터뷰>

저희 센터원들은 병영혁신센터가 생겨난 계기에 대해서 모두 가슴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군 장병과 군무원께서 저희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과 중압감이 크지만,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군인 여러분들에게 ‘대나무숲’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민거리를 줄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공군 병영혁신’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생겨난 만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F**



병영혁신센터장 이진호 대령

# 공군 신고전화 7979입니다.

군 전화는 (국번없이) 7979, 일반전화는 042-552-7979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7979는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공군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바르고 강한 공군을 만들겠습니다.

1

성고충상담  
성폭력신고

2

자살예방  
상담

0

병영 내  
애로사항  
건의/신고

공군신고전화

7979

(친구친구)

3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6

국방  
헬프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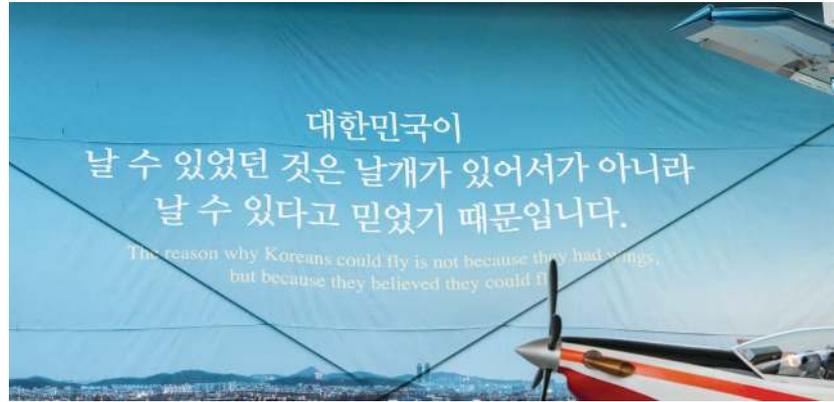
범죄신고  
상담

4

군인권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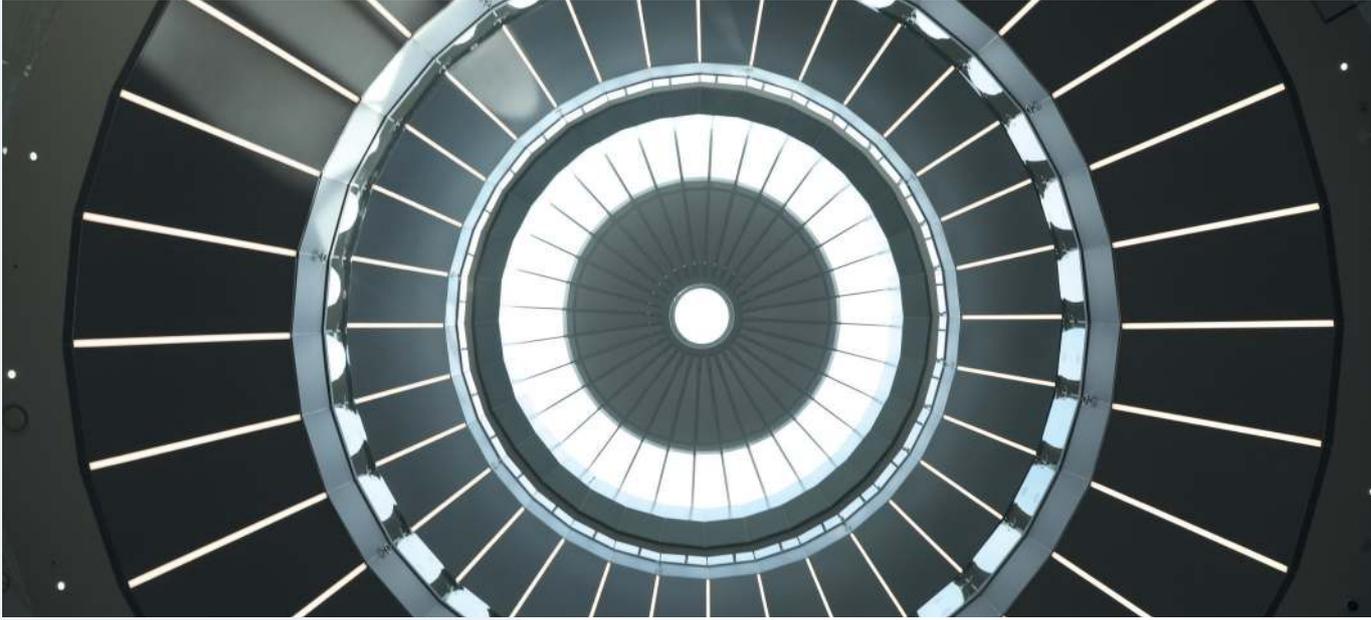
##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한눈에! 국립항공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을 여럿 가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군력 또한 막강하다. 우리나라가 항공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져, 국립항공박물관을 찾았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작년에 개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립항공박물관 이곳저곳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2015년에 최초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6년 동안 준비해 2020년 7월 5일 개관됐다. 개관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 비행학교, 월로우스 비행학교 개교일과 같다. 100년 전, 1920년 미국 땅에서 항공독립운동을 꿈꾸었던 그들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선정했다고 한다. 박물관은 3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항공역사관에서는 항공산업의 과거를, 2층 항공산업관에서는 현재의 항공산업을, 3층 항공생활관에서는 미래 항공산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슷한 이름으로





박물관 정중앙에서 올려다본 모습

제주도에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 제주도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도 볼거리가 정말 많으니 꼭 한번 가보길 바란다.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화려한 건물 외관이었다. 건물 전체를 항공기 제트엔진을 형상화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엔진 형상이다.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정중앙에서 올려다보면 실제 엔진 속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이어 박물관을 들어서자마자 한 문구가 이목을 끌었다.

**‘대한민국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날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내를 해주던 박물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항공 역사를 지닌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항공과 하늘은 호기심의 대상이었는데, 우리나라에게 항공은 조국 독립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역사는 공군의 역사와 길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흥미로웠다.

본격적으로 1층을 둘러보았다. 안내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니, 신화 속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하늘부터 인간들의 활동 무대가 된 하늘까지 변하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16세기 임진왜란 당시에 정평구가 만든 하늘을 나는 수레 ‘비거’도 복원해서 전시해두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중에 진주성에서 하늘을 나는 수레를 만들어 2명 이상의 사람이 탔다는 문헌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 정평구가 만든 비거 복원본



- ① 윌로우스 비행학교와 관련된 전시물
- ② 김신 장군의 업적이 담겨져 있는 서랍장
- ③ 스탠더드 J-1

그 옆엔 몇 세기 뒤의 이야기인 라이트 형제의 복엽기 ‘플라이어’호 이야기도 있다.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과 관련된 비하인드 이야기도 들려준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니 꼭 해설사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이어진 전시공간에서는 우리나라의 항공역사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한다. 항공역사 전시공간을 둘러보니 공군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보인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교인 이용근 비행사의 면허증,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개교했다는 내용을 다룬 미국 현지 신문, 국민 성금으로 구입해 한국전쟁에 투입된 T-6 전국기,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 F-51 무스탕 등 공군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들이 수도룩했다. 1층 마지막 전시공간에는 항공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적힌 서랍장이 있다. 서랍장을 열어보면, 그분들의 생애와 업적이 짧게 적혀있다.

마지막 위치에서 올려다보니 우리나라 항공기를 비롯 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항공기들이 실물과 유사한 크기로 공중에 전시되어 있다. 특히, 그 중 안창남 선생님의 ‘금강호’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조선인 안창남 선생이 몰았던 복엽기 뉴포르-17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안창남 선생이 항공기에 그려 넣었던 한반도 그림과 자신의 이름도 재현해냈다. 그 옆에는 오래된 항공기 한 대가 지상에 정대되어 있었다. 스탠더드 J-1이다. 윌로우스 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했던 2인승 복엽기다. 꼬리날개에는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항공기 옆면에는 ‘K.A.C’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Korean Aviation Corps’ 한인비행학교를 뜻한다. 그 옆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실물 크기로 복원되어 있다. 작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직접 각뿔 내부도 구경할 수 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처음 찾은 곳은 체험관이다. 2층과 3층에는 총 5개의 체험교육실이 있다. 체험교육시설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만 운영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은 B-747 조종기 조종체험공간이다.



B-747 조종 체험

실제 B-747 조종석을 재현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을 통해 이륙부터 착륙까지 해볼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조작이기에 30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 출신들이 옆좌석에서 친절히 가이드를 해준다. 이 체험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현실성 때문인데, 조종과 관제를 연동한 조종관제 시스템을 운영해 관제를 받으며 비행을 해볼 수 있다. 체험에 앞서 짧은 교육을 진행한 후 비행을 하니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이에 못지 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블랙이글스 체험. 3D 장비에 탑승해 블랙이글스의 대표 기동들을 눈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3D안경을 끼고 체험석에 앉으면 이내 360도 회전하며 속도감이 느껴지는 화면들이 시연된다. 박물관에서 환호 소리가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내훈련체험 부스

비행기에서 기내방송으로만 듣던 안전교육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항공사 승무원들이 실제로 하는 안전훈련체험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비상 착륙한 항공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과 각종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기내 질서도 익힐 수 있다. 그 외에도 경량항공기 시뮬레이터, 드론 레이싱, 행·패러글라이딩 VR 체험 등 항공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다. 박물관은 별도의 입장료가 없지만,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니 박물관에 가신다면 꼭 체험해보시길 권한다.

이어서 2층 전시공간을 둘러보았다. 현재 항공산업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시공간인데, 길을 걷다 보면 공항에 와있는 기분이 든다. 실제 공항과 같이 체크인 키오스크가 작동하고 있고, 검역대도 있다. 탑승수속부터 검역, 관제 현장까지 모두 둘러보니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기분도 들었다. 전시공간 중간중간 전문적인 해설이 적힌 설명판도 있다.

끝으로 3층의 특별기획전을 찾았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념일이나 행사 등을 계기로 특별전도 개최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전은 ‘김포공항’이다. 일제 강점기 군사용 활주로로 시작한 김포공항은 6·25전쟁 시에는 영공 수호의 최전선이었으며, 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 대표 민간공항으로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관문이었다. 김포활주로로 시작한 과거에서부터 도심형 스마트 공항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까지 공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녹아들어 있는 다양한 삶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모두 둘러보고 나니 2시간이 훌쩍 지났다. 꼼꼼하게 둘러보고 모든 체험을 한다면 만나질이 훌쩍 지날 것으로 보인다. 시간 관계상 직접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관람객들이 체험을 하는 모습만 봐도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 국립항공박물관에 오니 과거 선배 항공인들이 꿈꾸었던 미래를 엿볼 수 있었고, 미래 항공꿈나무들이 키워가는 비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항공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았다. ‘대한민국은 시련의 순간에도 가장 높은 꿈을 꿨기에 오늘날 전 세계 어디로든 마음껏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박물관 소개 문구 중 일부이다. 선조들은 과거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보려고 노력했고, 주권을 빼앗긴 순간에도 항공독립운동을 펼치며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기에 우리 민족의 DNA에는 ‘항공인’이 들어있다. 그것이 이유다. 공군인이라면 꼭 한번 박물관을 찾아보길 권한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슴 속을 뜨겁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AF



#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 공군 SNS 주요콘텐츠 안내

### 에어본

AIRBORNE



오직 공군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촬영 콘텐츠

### 공대리



공군 대위 LEE가 쉽게 풀어주는 공군 이야기

### 공피셜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 100인의 공군



공군의 다양한 보직을 소개하는 미니다큐멘터리

### 입대요강



공군 전문특기병 지원 가이드



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rokafplay



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rokairforce



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rokaf\_offical



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



# 간단·건강·특별한 명절 음식 차려보자!

올해는 9월에 추석이 있다.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담소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찮아 아쉬움이 크다. 특히,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프게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추석 음식을 소개하려고, 요리연구가 한 분을 만나 뵈고 왔다. 기존의 명절 음식처럼 기름지지도 않고,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했다. 비록 할머니와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집에서 명절음식을 만들어 기분이라도 내보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윤혜신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혼인까지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마흔 살에 충남 당진으로 귀촌했습니다. 어머니 손맛과 그리움이 담긴 건강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한정식집을 차려 17년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꽃밭, 텃밭을 가꾸고 개와 고양이를 키우며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일들을 취미 삼아 하다가 써가던 글을 엮어 요리책과 도감, 그림책 13권을 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건강 밥상 차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요리강습을 꾸준히 했고, 교육방송 <최고의 요리비결> 프로그램에서 요리 강사로 십여 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식당 문을 닫고 잠시 쉬를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식당 문을 다시 열어 건강한 음식으로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저와 남편은 서울 태생이고 서울서 자라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혼인하여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IMF 경제위기가 왔고, 남편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지요. 마침, 당진에 작은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귀촌해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도 요리선생이어서 아담하게 식당을 지어 운영하자고 했죠. 그렇게 2004년 제2의 고향 당진으로 내려왔습니다. 막상 내려와 보니 걸은 서울 사람이었지만,

속은 둘 다 시골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골이 좋았어요. 나무, 꽃, 돌맹이 하나까지도 예뻐 보였어요. 전 하루 만에 시골에 적응해서 숲을 뒤지며 나물을 캐고 남편은 나무를 심고 필요한 가구도 푹푹푹푹 만들기 시작했어요. 귀촌해서 지내오다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보리출판사 <살림살이> 도감에 글을 쓰며 연재를 하다가 그걸 묶어서 첫 책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발간한 단행본이 무척 많이 팔려서 그 뒤로는 매년 최소 1권씩 건강 요리 관련 책을 내왔습니다. 시인과 소설가의 꿈은 접었지만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일에 대해 좋은 글을 쓰고 요리법을 알리는 일은 늘 저를 신나게 합니다.

아참, 저도 공군 가족이랍니다. 제 남편이 공군병 346기 82-10차 병이에요. 연애 시절부터 그렇게 귀가 닳도록 공군 시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공군본부 본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다더군요. 그때는 공군본부가 대방동이었던대요. 남편은 공군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늘 자랑스럽게 군인시절을 얘기하곤 해요. 제가 딸만 들어서 그렇지 아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공군에 입대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군을 떠올리면 늘 친근하고 정겹게 느껴지네요.

처음에 도시에서 요리를 배우고 가르칠 때는 정말 맛있는 요리, 멋드러진 요리를 만들려고 애썼어요. 최신 유행하는 요리를 먹고 따라 해보았어요. 입에서 맛있는 요리와 눈에 멋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음식의 오감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니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알러지와 생활습관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생협이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고 조리법도 최대한 간단하게 바꿨어요. 가족들의 건강도 되찾았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별한 추석 한상차림도 모두 건강한 요리들이니, 한번 꼭 해보세요.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식 장사를 하다가 저는 한 할머니에게서 명쾌한 해답을 들었어요. 식당을 찾아주신 농투성이 할머니께서는 오랜만에 아주 정성스러운 밥을 먹었다며 고맙다고 제게 인사를 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난 밥이 뭐 줄 아남?” 물으시는 거예요. 머뭇거리자 빙그레 웃으시며 “짜 빠지게 일하고 먹는 밥이여!” 하고 가셨어요. 아하! 정말 맛있는 요리, 좋은 요리는 맛, 멋, 건강을 떠나 열심히 땀 흘리고 나서 배고파서 먹는 밥 한 그릇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요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헬렌 니어링의 저서 『소박한 밥상』을 보면 가장 좋은 요리는 ‘텃밭에서 밥상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현대에는 모든 것이 발달해 스마트 농법, 빠른 배송, 가공과 포장으로 식재료와 식품이 내 밥상에 간단히 오게 되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첨가 식품들을 생각하면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아요. 좋은 요리는 식재료가 80퍼센트라고 생각해요. 좋은 재료는 아주 간단한 간만 맞추면 훌륭한 요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자연상태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이 최선이니까요. 신선한 재료에 아주 간단한 조리과정이 가장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습습한 자연의 맛을 좋아하게 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도 레시피가 몇 줄 되지 않는 요리들입니다. 재료들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맛있게 먹는 법! 신기한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추석이란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때, 한 해의 무탈함을 가족, 친지, 이웃들과 감사하며 추수한 음식들을 둘러앉아 먹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제철 과일과 채소들을 이용한 음식을 구상했어요.



또, 요즘 너무 짜고, 달고, 맵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아서 우리의 소화기관이 혹사당하지요? 건강한 재료로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는 게 요즘 유행처럼 되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간을 적당히 해서 속도 편한 상을 차려보았어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2,3킬로 몸이 붙었다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추석 상은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새우젓무국, 겨자채, 뿌리채소찜, 모듬전, 사태편육**입니다.

새우젓무국 조금 특이하죠? 토란탕이나 소고기무국이 추석 상에는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명절음식 대부분이 고기가 들어가 있어 많이 먹다 보면 개운하고 깔끔한 음식도 필요한데요. 저희 할머니는 겨울이면 가을무를 달달 볶다가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 폭 끓여 드셨어요. 속이 더부룩할 때 밥에 말아 먹으면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고기가 들어간 것처럼 맛있는 무국이에요. 저는 쌀뜨물을 쓰는데요. 쌀뜨물은 세 번째 쌀뜨물을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쌀뜨물은 불순물이 많아요.

겨자채와 뿌리채소찜은 제철 과일과 채소로 만든 맛있는 반찬이에요. 두 요리는 재료 손질만 하면 요리가 90% 완성된답니다. 특히, 뿌리채소 토란, 감자, 우엉, 연근, 당근들은 잎채소에는 없는 무기물이 많이 들어있고요, 가을엔 맛도 달고 좋아지죠. 그런 뿌리채소들을 집에 있는 간장과 술만 살짝 넣어서 찜을 해먹으면 다가올 본격

적인 간절기에 몸을 따스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줄거예요. 그리고 토란에는 멜라토닌같은 호르몬 성분도 있어서 계절이 바뀌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시차도 잘 적응하게 해주지요.

모듬전은 우리나라의 전통요리법인 밀가루집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밀가루집은 우리밀 밀가루와 물, 조선간장과 참기름으로 만든 한국식 밀가루 반죽이에요. 전을 부치는데 신기하게도 계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절 음식들이 모이는 자리에 고기가 빠질 순 없죠? 갈비찜은 너무 식상하고,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 편육을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사태 부위는 특히 편육을 했을 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어때요? 벌써 똑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으니 아래 과정을 잘 따라와 보세요~



## 새우젓무국

### 재료

무 500g, 대파 1/2대, 다진 마늘 1큰술,  
새우젓 1큰술, 참기름 2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 만들기

1. 무는 한입 크기로 나박나박 썰어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서 약불로 볶는다.
2. 무가 절반 정도 익으면 물을 붓고 다시마 한쪽과 끓인다.
3. 한소끔 끓인 뒤 다시마를 빼고 조금 더 끓인 후에 새우젓, 마늘, 파를 넣고 끓인다. 간은 소금으로 맞춘다.

## 겨자채

### 재료

사과 1/2개, 배 1/2개, 밤 5개, 오이 1/4개, 잣 1큰술, 새우 10마리, 대추 5알  
겨자 소스 : 물 3큰술, 소금 1작은술, 설탕 2큰술, 식초 2큰술, 겨자 2작은술

### 만들기

1. 새우는 껍질을 벗겨 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데쳐 식힌다.
2. 모든 과일과 채소는 한입 크기로 나박썬다.
3. 상에 내기 직전에 겨자소스에 재료를 고루 무쳐담는다. 위에 잣을 곱명으로 뿌린다.



## 연근전

### 재료

연근 300g / 밀가루집 : 우리밀 밀가루 1/2컵, 물 1/2컵, 국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 만들기

1. 연근은 껍질을 벗겨 쌀뜨물에 살짝 데쳐 식힌 후 물기를 뺀다.
2. 만들어 둔 밀가루집에 데친 연근을 앞뒤로 적셔 기름 두른 팬에서 노릇하게 지진다.  
\* 단호박, 애호박, 배추, 우엉, 가지, 무 등 다양한 채소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치면 기름을 덜 먹고 담백하게 전을 즐길 수 있다.

## 두부김치전

### 재료

두부 1모, 김치 1/2컵, 참기름 약간

### 만들기

1. 부침용 두부를 도톰하게 잘라 기름 두른 팬에 노릇하게 지져낸 뒤 충분히 식힌다.
2. 김치를 다져서 꼭 짰 후에 참기름으로 무친다.
3. 식은 두부를 가운데 깊이 칼집을 낸 뒤 김치소를 적당히 넣는다.



## 부리채소찜

### 재료

토란 200g, 연근 200g, 우엉 100g, 당근 100g  
양념장 : 청주 1컵, 미림 1/2컵, 간장 3큰술

### 만들기

1. 토란과 연근, 우엉은 껍질을 벗겨 한 크기로 썰고 썰뜨물에 데친다.
2. 당근도 같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3. 냄비에 양념장을 넣고 준비한 재료를 넣어 물을 자작하게 부어 뚜껑을 연 상태로 중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인다. 국물이 밑에 살짝 흐를 정도가 되면 불을 끈다.



## 사태편육

### 재료

소고기 사태 800g, 대파 3대, 통후추 10알, 술(소주, 청주) 2잔, 배 1/2개  
겨자 소스 : 물 2큰술, 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겨자 2작은술

### 만들기

1. 사태는 힘줄, 지방을 제거하고 찬물에 1~2시간 이상 담가 핏물을 뺀다. 중간중간 물을 바꿔준다.
2. 물에 대파와 통후추, 술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어오르면 사태를 넣고 크기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 삶는다. 고기를 찢어보았을 때 핏물이 나오지 않으면 꺼내서 충분히 식힌다.
3. 차갑게 식힌 사태를 길이로 동그란 모양이 나게 편으로 썬다.
4. 찬물에 한 번 헹군 대파와 배를 채썰어 고기 위에 담고 겨자소스와 함께 상에 낸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한 번 해 보셔요! 쉬운 요리과정에 한번 놀라고, 맛있는 요리에 두 번 놀랄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군 가족 여러분과 지면을 통해서 요리로 맛있게 되어 기쁘네요. 세상에 많고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치고, 아프고 슬픈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예전에 먹었던 김치국, 된장국, 국밥 한 그릇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해주신 한 그릇 밥으로 살 용기를 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되도록 건강한 맛을 찾아 식습관을 좋게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재료 고유의 향과 맛과 색에 감탄을 하게 되니까요. 공군가족 여러분, 좋은 음식 드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AF

# 군은 장병과 시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글쓴이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문민통제의 특수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으며, 2015년 BJC(방송기자클럽) 올해의 방송기자상 대상, 2016년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자 대상, 2016년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T. R. 페렌바크는 미군의 교과서처럼 읽히는 명저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에서 6·25전쟁 참전을 앞둔 1945~1950년의 미군을 이렇게 묘사했다.

“군인이 되어서도 민간인 신분을 버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군”, “군복은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민간인”,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열망해서 마침내 이루어낸 군대”, “이 군대는 제멋대로이고, 군기가 빠졌으며, 모두가 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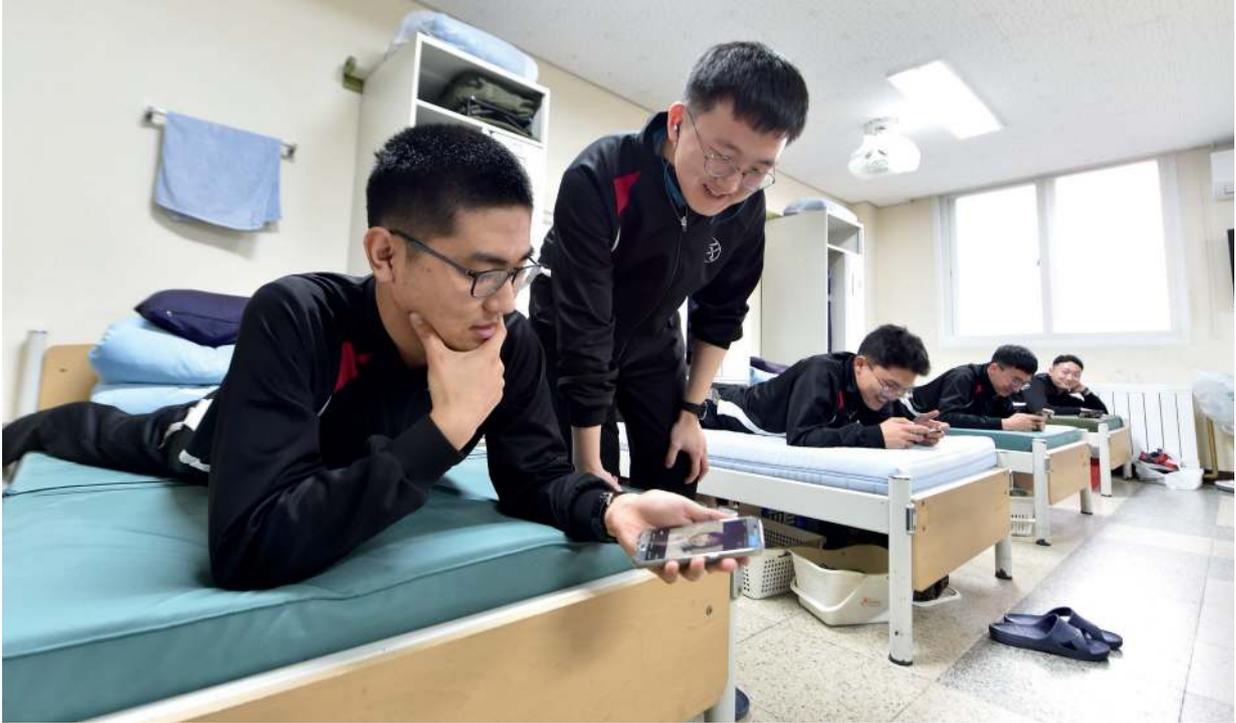
원래 미국은 정규군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규군을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잠재적 폭력으로 여겼다. 독립을 쟁취한 직후 정규군을 아예 해체했을 정도이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특출난 외부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정규군을 유지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병영의 사회화, 민간화를 강요했다. 이에 미군 장병들은 군복을 입었을 뿐 병영 밖 민간인과 다름없는 인식과 생활을 추구하게 됐다. 페렌바크의 눈에 비친 바로 그런 군대가 된 것이다. 이후 미군은 6·25전쟁, 베트남전 등 가혹한 실전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사회화된 군의 전투력과 자긍심을 끌어올렸고, 사회와 공존하는

강군의 길을 걸었다.

사회 저변에 반군(反軍) 의식이 깔려있고, 군대의 울타리가 무너진 1945~1950년의 미군. 현재 우리 군의 사정과 흡사하다. 우리나라 대중의 반군 의식은 과거의 미국 못지않다.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부터 군의 울타리도 치워졌다. 곰팡이 투성이 격리시설, 손가락 들기 민망한 도시락, 화장실 못가는 훈련병, 부러진 슬개골... 그리고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불거진 성추행 사망 사건. 곳곳에서 터져 나온 장병들의 아우성은 군의 사회화를 드러내는 한 단면일 수 있다. 각각의 사건에 처방을 마련하는 것은 일회성 해열제에 불과할지 모른다. 병영의 사회화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진다.

## 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

5·16 군사정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군부의 시대를 살았고,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 숙청과 울곡비리 수사로 군의 탈정치화가 달성됐다. 이후 문민의 군에 대한 통제, 즉 문민 통제가 20여 년째 이뤄져 군의 정치



개입, 북한의 침략을 억지했다. 안보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민주국가의 필수 제도인 문민 통제의 성공이다. 문민 통제가 민주국가 강군의 하드웨어라면, 장병들의 사기는 소프트웨어이다. 바야흐로 소프트웨어를 일대 개혁할 때가 온 것 같다.

군은 한때 기술, 조직, 기강 등 다방면에서 민간보다 우위였지만 이제는 멀쩡이 뒤쳐졌다. 군대에서 배워 사회에서 써먹을 게 더 이상 없다. 군 PC방인 '짜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에 이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군과 사회 간 울타리도 무너졌다. 군 안에는 자율과 평등, 공정성이 이식되고 있고, 병사들은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군인이지만 울타리 밖 민간인과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한다.

군은 열심히 장병들의 변화를 뒤쫓았어야 했는데 안주했고, 그 결과가 요즘 불거지는 사건들과 장병 사기 저하가 아닌지 치열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밀한 대책을 내놓은들 머잖아 다른 부조리가 터져 나올 터. 미봉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군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중의 반군 정서를 견어낼 수 있는 밑바닥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

### 사회화된 군인의 자긍심을 끌어올려라

시민과 군인이 하나되는 것, 바람직한 현상이다. 1945~1950년의 미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열망한다.

군의 전투력이 담보된다면 시민, 사회와 통합된 군의 힘은 민주주의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보루가 된다. 병사들이 잘 먹고 잘 자는 복지를 제고하고 익명 신고 앱을 개발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성군기 확립을 장병들 머리에 우겨넣는다고 남녀평등의 병영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민족적, 반공적 애국심에 호소할 수도 없다. 미군처럼 6·25 같은 전쟁을 경험하며 사회화된 군의 결속을 다질 잔인한 기회도 없다.

참모총장,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서 같이 땀 흘리며 장병들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이다. 한두 달로 해치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목표는 분명하다. 병영에 사회와 똑같은 자율과 평등, 복지를 보장하되 명령과 복종, 기강의 위계는 흔들리지 않는 군대이다. 동시에 군인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켜 장병들로 하여금 기꺼이 전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방법은 묘연하다. 그러니 지휘관들은 하방(下方)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지휘관 군복에 흠먼지, 진흙 묻힐 각오쯤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민들도 지지한다. 시민의 지지와 장병의 자긍심은 강군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식당에서 밥 먹는 제복들 밥값 대신 내주는 풍경, 한국에서도 보고 싶다. AF

#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 제19화 김종삼(金宗三) 시인 편



「코메트」 제20호, 1956년

###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

- 소년병(小年兵)이었던 죽은 아이 종수(宗洙)에게

주일(主日)이 옵니다.  
오늘만은 그리로 돌아가렵니다.

한편 기다란 담장길이 벌어져  
있는 얼마인가는 차츰 흐려지는  
길이 옵니다.

누구인가의 성상과 함께  
눈부시었던 꽃밭과 함께  
마중 가 있는 하늘가입니다.

모든 이들의 안식날이랍니다.  
저 어떤 날 주일 때 본

그림  
카드에서 본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어 보이었던  
그날이랍니다.

이미 떠나 버리고 없는  
그렇게 따사로웠던  
보호니(母性愛)의 눈시울을 닮은  
그이의 날이랍니다.

영원이 빛이 있다는 아름다움이란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날이랍니다.

그러므로 모두들 기다려  
머물러 있는 날이랍니다.  
받기 어려웠던 선물처럼……

김종삼 시인이 공군지에 처음 시를 발표한 때는 1954년이다. 이때 나오던 공군지 『코메트』 제10호에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수록했는데 제목은 「G마이나 - 전봉래에게」였다. 이후 2년 후인 1956년에 김종삼은 『코메트』 제20호에 상대적으로 긴 시를 하나 발표하게 된다. 시의 제목은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이었다. 이 두 편 외에 김종삼은 공군지에 시를 발표하지 않았다. 산문 쪽으로도 『코메트』에 수록한 글은 없었다. 편수는 적어도 김종삼이 『코메트』에 시를 발표한 시기와 작품면면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1954년에 등단한 김종삼의 초기 활동을 『코메트』 수록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메트』에 수록한 두 작품은 김종삼이 가장 사랑한 친구, 가장 사랑한 동생의 죽음을 기리는 작품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종의 애도시인 셈이다. 우리는 생전의 시인이 가장 가슴 아프게 써 내려갔을 두 작품 모두를 『코메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시인 김종삼(金宗三, 1921-1984)은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안산이며 종삼은 그의 본명이다. 김종삼의 부모는 4형제를 두었는데 형제 중 맏이가 시인 김종문(金宗文, 1919-1981)이고, 둘째가 바로 김종삼이었다. 밑으로는 김종린, 김종수라는 두 동생이 있었다. 김종삼은 어려서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고 10대에는 일본에 유학하여 공부하기도 했다. 상업학교를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술을 사랑하던 김종삼 시인에게 상업학교 수학은 자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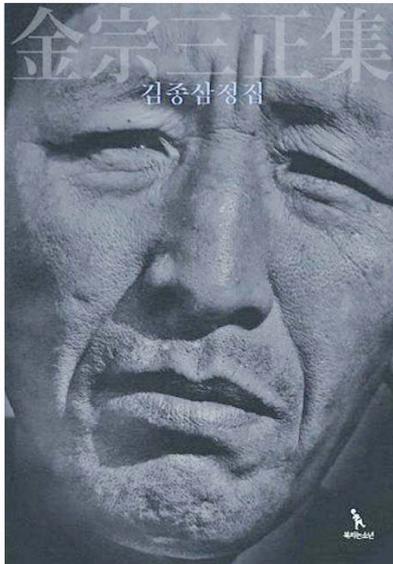
그래서인지 19살에 상업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음악 공부를 희망했다고 한다. 아들의 의중을 알아차린 부친은 결사반대, 결국 김종삼은 학비를 받지 못해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삼은 일본에서 음악과 영화를 자력으로 공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삼의 생애와 그의 이해 부분에서 ‘음악’이라는 키워드는 매우 중요하다. 일찍이 음악을 사랑했던 김종삼은 실제로 음악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여 관련 업무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다. 다수의 영화음악 작업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방송국에 취직하여 음악 효과, 배경 음악 담당을 했다.

생애에서 음악이라는 키워드는 김종삼의 직업으로 이어지고, 문학에서 음악이라는 키워드는 김종삼의 순수성으로 이어진다. 김종삼은 가장 추상적이며 순수한 예술 형식이라는 음악을 온 생애 동안 가까이 한 시인이었다. 세상의 변화보다는 순수한 예술 본연에 대한 절대적 추구가 김종삼의 시세계에서도 엿보이거니와 음악에서 기인하는 어휘와 소재는 김종삼 시의 주된 특징이 되기도 했다.



김종삼 시인



『김종삼 정집』(홍승진 외 편, 북치는소년, 2018)

다시 연보로 돌아가자면, 1945년 해방이 되어 시인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직후의 김종삼은 한국군과 조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형 김종문은 당시에 군 관계자였고 나중에는 국방부 정훈국장 등을 역임하다 1957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바 있다. 이 당시에 군에 있던 형의 추천으로 군 잡지 편집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추후 시인이 등단하자마자 『코메트』에 시를 수록하게 된 사정 역시 이러한 이력과 관계되었을 것이다.

김종삼이 시인으로 등단하게 된 것은 1954년의 일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전집인 『김종삼 정집』(북치는소년, 2018)의 공식 연보로는 1954년 6월에 『현대예술』에 「돌」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코메트』에 수록된 「G마이나-전봉래에게」라는 작품과 같은 시기이다. 등단하던 해, 달까지 같으니 「G마이나-전봉래에게」 역시 김종삼의 가장 처음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G마이나 - 전봉래에게

돌  
달는 곳  
  
신고(神羔)의  
구름 밑  
  
그늘이 앉고  
묘연(杳然)한  
옛  
G마이나



『코메트』 제10호, 1954년

이 시에서 부제에 등장하는 전봉래(1923-1951)는 본인도 시인이었고 시인 전봉건(1928-1988)의 형이기도 했다. 김종삼에게는 두 살 터울의 동생이었지만 두 사람은 친구 관계였고 김종삼은 전봉래를 자신의 '다우(茶友)'라고 불렀다. 두 사람에게 시와 음악이라는 강력한 공통점이 있어 만나자마자 깊이 사귄 수 있었다. 특히 전봉래와 김종삼은 고전음악을 좋아하고 그에 대한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지기(知己)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봉래는 일찍 세상을 뜨게 된다.

전봉래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피난지 부산에서 자살하였다. 다량의 수면제를 삼킨 전봉래는 “찬란한 이 세기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소. 그러나 다만 정확하고 청백하게 살기 위하여 미소로써 죽음을 맞으리다. 바흐의 음악이 흐르고 있소.”라는 유서를 끝으로 세상과 이별했다. 그의 자살은 당시 문단에 큰 충격이었고 또한 김종삼에게도 충격이었다. 유서에서 언급한 ‘바흐의 음악’이 위 시의 제목인 ‘G마이냐’로 연결된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로 전봉래의 죽음이 미친 영향은 컸다.

“나의 다우 시인 전봉래가 죽음의 뚜껑을 열고 우리와 영원한 두절의 세계로 비약해 간지도 어언 십여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잊을 수도 없는 부산 피난 때 스타아 다방의 계단! 나는 그의 죽음을 뒤늦게 알고 달려갔을 때의 설레이던 가슴의 고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김종삼, <특집·작고문인 회고- 피난 때 연도(年度) 전봉래>〔현대문학〕, 1963.2 중에서

위 인용문은 전봉래 시인의 죽음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김종삼이 작성한 회고문이다. 회고문 뿐만이 아니다. 1951년에 사망한 전봉래 시인은 이후 3년간 김종삼의 시상 안에서 살아 있었던 듯하다. 사망한 문우에 대한 기억은 1954년에 시로 재탄생하니 그것이 바로 「G마이냐-전봉래에게」라는 작품이다. 김종삼이 이후 발표한 시 「시인학교」라는 작품에도 “전봉래 / 김종삼 한 귀퉁이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주를 나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5번을 기다리고 있음”이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후로도 전봉래는 김종삼의 여러 시편에 등장하면서 친우의 시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게 된다.



전봉래 시인

이 작품이 친구에 대한 애도시라면, 「받기 어려운 선물처럼」은 자신의 막내 동생에 대한 애도시이다. 이 시의 부제는 ‘소년병이었던 죽은 아이 종수에게’이다. 김종삼과 막내 김종수의 나이 차이는 11살이었다고 한다. 이북 출신이었던 김종삼은 1947년 월남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 및 막내 동생과 동행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지나 막내 동생 김종수가 사망하게 된다. 김종수가 아직 10대 후반이었을 때의 일이니 ‘소년’이라는 지칭, ‘아이’라는 지칭이 어색하지 않다.

친구 전봉래의 죽음 이전의 친동생 김종수의 죽음은 김종삼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삼의 시 곳곳에 동생 종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아플 때를 담은 시라든가 죽음 자체에 관한 시를 쓸 때에 종수의 죽음이라든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종수의 눈동자, 어린 죽음 등이 언급된다. 1950년대를 전후한 동생의 죽음, 친구의 죽음은 김종삼의 문학과 영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 의식이 김종삼 시의 모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종삼에게서 우리는 순수한 아름다움의 추구, 인생을 사는 겸양과 인간적인 태도를 발견할 때 큰 감동을 받아왔다. 그 예로 그의 대표작을 한번 보자.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김종삼 시비

시인이면서 시를 잘 모르겠다는 그의 말 속에서 참시인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어서 김종삼은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순수하고 인간적인 세계를 이상적으로 그렸던 시인이 바로 김종삼이었다. 그는 실향의 아픔, 때 이른 혈육의 상실, 친우의 죽음, 자신의 병고와 쓸쓸함이라는 고난 중에서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이상향을 꿈꿨던 시인이다. 김종삼 시인은 1984년 과음으로 인한 간경화로 사망하게 된다. 그의 유품은 매우 소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패, 혁대, 도민증, 볼펜 하나, 물통 하나, 모자 하나, 체크무늬 남방 한 벌, 본인의 시집이 다였다(『김종삼 정집』 연보 참조). 그러나 김종삼이 문학계에 남긴 작품이라는 유품은 결코 소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AF

# 대한민국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제148기 예비장교후보생 21-2차 모집

지원서 접수기간

2021. 9. 3. ~ 10. 1.

모집문의

 공군모집

 @ROKAFrecruiting

 @rokaf\_recruiting

 1433-09



# AIR FORCE YOUR FORCE

더 높은 힘을 향해 도전하세요

제29화 국립항공박물관 오원재 학예연구사

#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현역시절 F-15K 마지막 비행 후 찍은 기념사진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항공박물관 학술연구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원재입니다. 2009년에 공군사관학교 57기로 임관해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에서

F-15K 후방석 교관 조종사로 복무하고 2019년 11월에 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아직까지 짧은 머리가 편하고, 선배들을 만날 때면 자연스럽게 거수 경례를 하는 군인 티를 벗지 못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푸른 하늘이 좋아 공군에 갔고, 20대 전부와 30대 대부분을 대한민국과 공군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새로운 모험이 하고 싶어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저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공군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답니다. 제가 맡은 연구 분야가 대한민국 항공의 역사와 현재·미래인데 우리나라의 항공 역사의 시초는 곧 공군의 역사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항공사, 항공 산업의 발전사를 연구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 매일을 실전처럼 보낸 날

F-15K 조종사로 근무하기 시작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대로 전입한 후 작전 가능 조종사가 되기 위해 기종 전환 훈련을 하던 때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일 대대 선배 조종사들은 실전 출격 준비를 했고, 연평도 상공에서 무장을 장착하고 비행 중이었습니다. 대대에 배치받고 얼마 되지 않은 어리바리한 초급장교였던 저에게는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죠. 그러던 중 먼저 대대에서 임무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던 동기생과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놀랐습니다. 항상 같이 장난만 치던 동기생이 너무나 믿음직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나서야 제 눈에 다른 조종사들의 모습이 들어오더라구요. 모든 조종사들의 모습에서 확실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전투조종사로 매일매일 훈련을 해왔기에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죠. ‘명령만 떨어져라! 보란 듯이 임무에 성공하리라!’ 다들 이런 마음가짐이었답니다. 전투조종사로 근무하기 시작할 때의 일이기도 해서 그 이후 제 군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매일매일 임무를 준비할 때 학생조종사 적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됐죠. 당장 지금이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임무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패기를 품었어요. 그렇게 F-15K 후방석 교관 조종사까지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F-15K 1,000시간 비행 기념패

###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어 결심한 전역

제가 전역을 한 데에는 남들처럼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서 아닙니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바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항상 도전이었습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한 것, 비행훈련에 입과한 것, F-15K 후방석 조종사가 된 것들 모두. 돌이켜 봤을 때 도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후회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고 싶어서 도전을 이어가려고,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공군을 위해 작은 발자취를 남기기엔 충분한 시간이라고요. 무슨 일이든 15년이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생각해볼 법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순항할 수 있죠. 군 복무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무작정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전역했습니다. 사실 전역 후에 일을 고민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전역 후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막연히 떠올려보기만 하고, 철저하게 팬텀으로 사회에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지난 15년간의 군 생활에서 배운 것들이 제가 선택할 새로운 길 앞에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 학예연구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전역해 이것저것 준비하던 중 당시 김포공항 지역에 있는 한국항공공사 항공훈련센터에서 제트비행 훈련 중이었을 거예요. 매일 그곳을 지나다니는데 제트엔진의 터빈을 형상화한 특이한 건물이 있었어요, 항상 지나가면 눈에 띄긴 했었어요. 그렇게 특이한 건물에 이끌려 갖게 된 관심에 큐레이터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유일한 전문직 분야이기도 한 학예연구사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흔히 큐레이터라고 하면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수집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전문분야의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박물관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빠져들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역사를 정리하고 사관생도 시절 하늘을 동경하고 꿈꿔왔던 저 같은 미래의 항공인들에게 꿈과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는 직업이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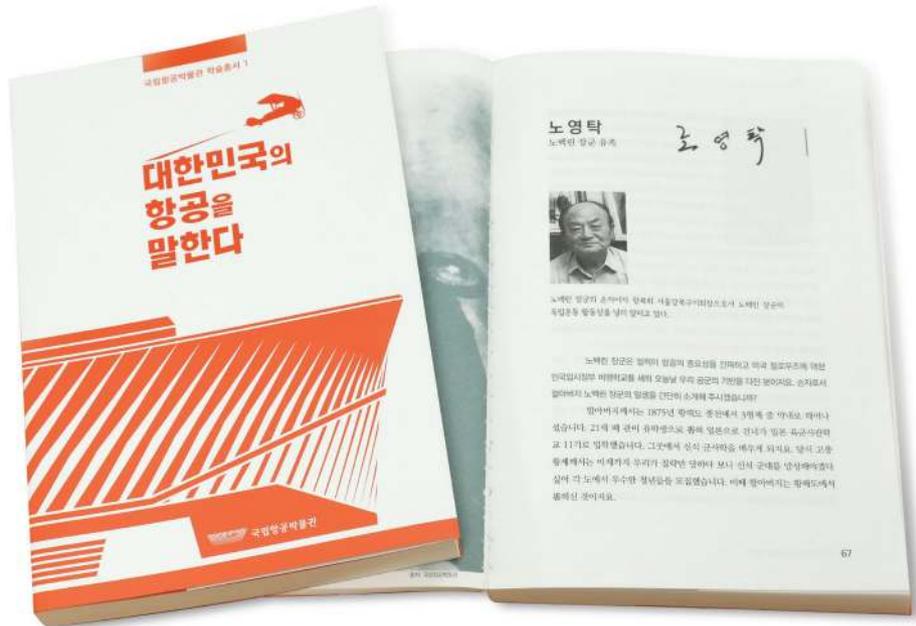


그렇게 시작해 무려 4,000명의 경쟁자를 뚫고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군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앞으로 시작하게 될 항공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어필했죠. 학예연구사 자리는 원래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국립항공박물관이기에 일반 학예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종사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그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항공종사자에는 크게 조종사, 항법사, 기관사, 통신사, 정비사, 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사업용 조종사 면장을 가지고 지원하게 된 것이었죠.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마치 하늘이 정해준 내 새로운 길이었나 싶더군요. 들어와서 보니 푸른 하늘이 좋아 사관학교에 들어갈 당시의 제 맘은 그대로더라고요. 결국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은 하늘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며,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 항공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크게 대한민국의 항공 역사를 정리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상을 연구해 미래의 항공인들에게 항공산업의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죠? 큰 목표를 두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한민국의 항공을 말한다』라는 국립항공박물관 학술총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일조하시고 항공산업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25명의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터뷰해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넓게 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공군 조종사의 눈으로 보고 있던 항공 분야가 25명의 전문가를 만나 뵙고 난 다음에는 제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영역임을 깨달았어요. 항공과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선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기획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 책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도 제작해 국립항공박물관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어요. 우리 공군인들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신기하죠! 박물관 학술연구팀에서 메타버스 공간에 항로와 항공유적지 지방공항 등을 구현하고 이를 활용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টে를 떠올려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가상공간에서라도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먼 훗날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보자! 재미있는 상상이죠. 북한에도 공항이 많습니다. 이 공항들의 항행 안전절차나 항행 안전시설을 구현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더라고요.



국립항공박물관 학술총서 『대한민국의 항공을 말한다』

또, 큰 이벤트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은 조선인 최초로 한반도에서 비행을 한 조종사 안창남 선생님께서 모국방문비행을 하신 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를 기념하며 재현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비행기인 뉴포르사의 복엽기를 재현해 서울 시내를 실제로 비행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의 학예연구사로서 제가 직접 비행기를 끌고 재현 비행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공훈을 인정받지 못하시거나, 잊혀져 가고 있는 항공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항공사』 저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항공독립운동가들의 공훈을 연구하셨고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흔적을 많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에 의해 선양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 뚜렷한 증거를 찾아주고 선양해 줄 수 있는 후손이 없으신 안타까운 분들이 대부분이신거죠. 저자와의 대화를 하고 난 뒤 제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그 후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우리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의 업적을 한 분이라도 찾아 밝히려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박물관 1층 항공독립운동가 전시공간에는 독립운동가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작은 서랍이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항공독립운동가 분들의 업적이 짧게 쓰여 있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서랍이 비어 있습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으나 행적을 뒷받침할 자세한 근거들이 부족해서죠. 또, 아직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은 빈 서랍장도 많습니다. 서랍장의 모든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저의 열정과 시간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을 하고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군이 아닌 사회에서 공군 관련 또는 항공업계 종사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일하는 우리 항공인들 그리고 공군인들 모두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사랑하는 우리 공군인이라면 항상 언제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라는 말이 있어요. 전역 후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슴속에 들어와 자리잡은 말입니다. 그 뜻은 ‘바람이 세게 불어야 강한 풀을 알 듯이 위급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당해야 의지와 지조가 굳은 사람을 알 수 있다’ 인데요. 아무리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우리 공군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들이쉬고 멋지게 비상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새롭게 자리잡은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항상 공군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공군 파이팅! **AF**



## 우 리 부 대 는



최강의 공중 전투전력을 운용하는!  
공군 핵심전력인 전투기 운영의 중심!  
전승보장!

# 공중전투사령부

영공방위 최일선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 증진에 헌신진력하고 있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를 소개한다.

### 부대 마크의 의미

상시 전비태세를 갖춘 공중전투사 전력이 일치단결하여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함을 표현

- **방패** : 절대로 뚫리지 않겠다는 **영공방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상징
- **4개의 삼각형** : 삼각형은 전투기를 의미하며 다양한 **전투 기종 간 응집력**을 통한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대한 의지를 의미
- **4개의 색상** : 공군의 **4대 핵심가치**를 상징
- **3개의 줄** : 영공수호의 핵심사령부인 **공군작전사, 공중전투사, 공중기동정찰사** 3개 사령부의 상시 출격 가능한 전투력 표현
- **청색바탕** : 대한민국의 영공을 의미
- **태극문양** :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

### 부대 연혁

- 2016. 01. 01. 공중전투사령부 창설(전신 남부전투사령부)
- 2016. 11. 02. FA-50 최종호기 인수
- 2016. 12. 22. TAURUS 무기체계 전력화
- 2017. 09. 28.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 우수부대)
- 2018. 04. 01. 17전비 151전투비행대대 창설
- 2018. 12. 01. 20전비 133비행대대 창설



공중전투사령부 창설식



사령부 청사

## 작전의 효율성, 전력의 효과성을 위한 전담 사령부

작전환경과 항공무기체계가 다변화되며 항공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첨단화된 항공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군의 모든 타격전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사령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공중전투사령부(이하 '공중전투사')가 창설되었다. 공중전투사는 2015년 7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기능전환 시범 적용을 마친 이후 2016년 1월 1일에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공중전투사는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해 공군 작전사령부의 중앙집권적 통제 하 부여된 작전을 수행하고, 공군 작전사령부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사령부 본부 3처 4실 14관을 운영하고, 9개 전투비행단과 2개의 비행 전대를 지휘하여 분권적 작전을 시행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편대 훈련 중인 F-15K



훈련을 위해 이륙 중인 KF-16

##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실전적 훈련과 점검

공중전투사는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하여 연중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기계회 및 불시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Soaring Eagle 훈련, 공대지/공대공 실사격 훈련, 공중전투사 X-INT 훈련, 공중전투사 공격편대군 훈련 등을 통해 최상의 전투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화 교육/훈련, 예하부대 비행훈련 등 비행교육/훈련을 감독한다.



무기정비 분야 표준화 평가

## 전투요원의 정예화와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표준화 평가

공중전투사는 예하부대의 작전환경을 고려한 주 임무수행능력, 실전적 교육훈련 실태 점검을 중점으로 항공작전, 무기정비, 운항 관제, 대공방어 분야로 구분하여 표준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준화 평가를 통해 작전요원의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조치 과제를 식별하여 전투요원의 정예화와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식별/검토하고 다양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전요원 전술토의

## 작전요원 전문성 제고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술개발

공중전투사는 작전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전술토의를 실행하고 있으며 예하 비행단에서 운용하는 기종 전술교범/지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전능력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 소요를 식별하여 상위 부대에 소요를 제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무기체계의 전력화 추진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조종사들의 전술기량 발전과 군사/항공 지식 함양을 위해 『에이스』지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공군의 최신 전투기 F-35A

##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공중전투사령부

공중전투사는 작전환경과 항공무기체계가 복잡해지고, 기술발전으로 적의 위협이 다변화됨에 따라 첨단화된 항공 전력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F-15K, KF-16, F-35A 등 다양한 타격전력 최적 운용을 위한 전술전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공군 전력 증진을 위해 신규무기체계의 도입 또한 준비하고 있다. '전승보장의 핵심, 최강의 공중전투사령부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오늘도 더 높은 하늘로 우주로 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 있다. **AF**



##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호위 비행

공군은 8월 15일(일) 일제강점기 당시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신 KC-330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자 F-35A, F-15K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호위했다.





##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해외임무 현장점검

박인호 참모총장은 8월 14일(토) 서울기지를 방문하여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위한 KC-330의 해외임무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임무요원들을 격려했다.

## 공군 병영혁신 자문위원 위촉



박인호 참모총장은 8월 6일(금),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최초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새롭게 출범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군 병영혁신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E-737 지휘비행



박인호 참모총장은 8월 5일(목)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에 탑승하여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참모총장은 심야 시간 실제 임무에 나서는 E-737 피스아이에 동승하여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임무요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전투비행단

### 흑서기 격무부서 위문활동

제1전투비행단 준사관단은 8월 11일(수) 격무부서를 방문하여 흑서기 주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과일, 파배기 등을 전달하며 작은 정성을 나누었다.



## 제3훈련비행단

### '22-3차 비행교육 기본과정 입과식

제3훈련비행단은 8월 9일(월) '22-3차 비행교육 기본과정 입과행사인 White Eagle Training을 거행했다. White Eagle Training은 조종사의 요람인 비행단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비행교육 전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이다.



## 제5공중기동비행단

### 2021년 전투지휘검열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8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2021년도 전투지휘검열을 실시했다. 대테러 대처 능력, 불발탄 식별 조치 평가, 항공기 사고처리 등 다양한 작전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공군의 핵심전력을 운영하는 창끝부대로서 최상의 대비태세를 확립했다.



## 제8전투비행단

### 대테러 훈련

제8전투비행단은 8월 13일(금) 경계태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문 일대에서 대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신원 미상인원이 출입문을 무단진입해 도주한 상황을 부여해 대테러 초동조치반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11전투비행단

### 110대대 무사고 비행기록 10만 시간 달성

제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는 8월 4일(수) 무사고 비행기록 10만 시간을 달성했다. 28년 8개월에 걸쳐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를 통해 이룬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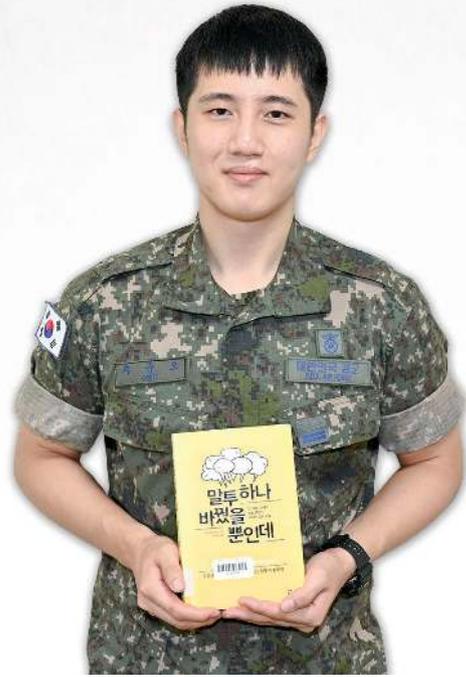


## 제19전투비행단

### 초병 시범실습식 교육훈련

제19전투비행단은 8월 10일(화) 기지방어종합훈련장에서 초병 시범실습식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경계작전요원의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가스고무탄총 실사격, 우발상황 대응 행동절차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 ‘무엇을 말할까?’가 아닌 ‘어떻게 말할까?’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과 소통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다. 듣는 사람의 가치관, 기분 등 청자 쪽에 있거나, 말하는 사람의 말투나 태도 등 화자 쪽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자를 고려할 순 있지만 바꾸기는 어렵다.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후자, 즉 우리의 발화 방식이다. 나이토 요시히토의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는 이와 관련해 말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여러 심리 기술을 제시한다.

교육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왕인데, 그가 여성 조각상을 보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가!’라고 끊임없이 생각했더니 그것이 인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현상이다. 나는 입대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

를 몸소 느껴본 적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하지는 못하여서 가정에서 원격학습을 해야만 했다. 교사인 나의 눈앞에 학생들이 없다 보니 학습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원격학습 강의를 다 듣지 않거나,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은 학생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졌다.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도 다수여서 전화를 드려도 잘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얘들아, 우리 반이 다른 반 친구들과보다 원격학습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반 학생 모두 매일 출석도 잘하고 수업도 잘 듣고 있어요. 다음 주 원격학습도 우리 반이 제일 잘할 수 있죠?”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니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잘 듣기 시작했다. 내가 만약 “원격수업 계속 몇 명이 제대로 안 하네요. 다음 주는 꼭 들으세요.” 라고 하거나 “○○야, 너 왜 제대로 안해?” 하며 잘 안 듣는 학생들을 혼냈다면 절대 일어

나지 않았을 현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에 부응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말투를 약간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군대에서도 중요하다. 훈련단 소대장과 조교들이 훈련병, 후보생에게, 간부님들이 병사나 후임 간부님들에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위와 같은 말투를 사용한다면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

말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윗사람에게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투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표본인데, 아랫사람에게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사회적인 관습이 때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말이 편하면 자신이 위라는 자의식이 생겨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난폭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이, ○○야, 그 일 제대로 해놔” “야, 그 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봐.” 이런 식의 말투로 말하기 십상이다. 군대에선 이런 현상이 가장 일어나기 쉽다. 왜냐하면 군대는 계급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해’체(반말)를 사용한다. 이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문제는 아니지만,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지시할 때 정중한 말투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윗사람에게 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중한 말투로 부탁한다면 아랫사람도 기꺼이 따르고 싶어질 것이다. 누구나 자신을 부리는 말투로 나를 대하는 사람보다, 정중하게 대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에게 존중받음을 느끼고 존경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나의 경험을 빌려보면 나는 현재 훈련단에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이다. 선임들이 나에게 업무

를 부탁할 때가 있는데, 그 말투에서 차이가 있다. 나에게 “미안한데~” 혹은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열심히 해내곤 하며 그런 분들은 따르고 싶은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반면, 난폭한 말투를 사용하는 간부와 병사들도 있었다. 그런 말투로 나를 대하는 분들에게는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고 시킨 일을 할 때 정말 하기가 싫어진다. 물론 평소의 관계 또한 많이 틀어지게 된다.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조금만 정중한 말투로 부탁한다면 아랫사람은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고, 윗사람은 충성심 있는 부하가 한 명 생기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고운 말은 인사라고 생각한다.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등 간단한 한 마디 인사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인사를 하는 것은 일명 ‘얼굴 도장’을 계속해서 찍어서 상대방과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아는 사이로 나아가게끔 도와주고 이 관계는 훗날 언제든지 도움이 될 것이다. 군대에서는 상호 간 경례를 한다. 경례는 상관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지니었는데 그 누가 먼저 경례를 하는 사람을 싫어할까? 군 내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인사 문화를 형성하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꼭 먼저 인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정감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조금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원만한 인간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장병들에게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를 꼭 추천해주고 싶다. 군대에서 고운 말 사용 문화가 형성되어 행복한 병영생활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AF

# 한 달, 한 권



## 독서법

흔히 7080이라 불리는 세대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연애감각은 순진하다 못해 어리숙하기 짝이 없었다.

음악다방에 예닐곱 명쯤 되는 남학생들이 장발을 쓸어 올리며 한구석에 마련해 놓은 자리에 일렬로 길게 앉는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콧등을 치켜세우고 남학생들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면서 미팅이 시작되었다. 우선 파트너부터 정해야 했다. 미팅을 주선했던 친구가 쪽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여학생 쪽도 마찬가지였다.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내 쪽지에는 ‘좁은 문’이라 적혀있었다. 아마 여자들 쪽지에는, 셰익스피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등, 이런 거장들의 이름이 적혀있었을 것이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당시 나는 『좁은 문』의 작가이름을 곧바로 떠올리지 못했다. 다행히 어느 여학생이 “앙드레 지드”를 외쳐 주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렇게 파트너가 된 여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좁은 문』을 읽어봤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취미는 독서라고 하였을 때, 나도 그렇다고 하였다.

8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 읽었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 내용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으니 읽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고?” 나는 우물거리며, 한 노인이 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지, 그런데 워낙 커서 배에 끌어올리지 못하고 배 옆에 묶어 돌아오는 데, 항구에 돌아왔을 때에는 잡은 물고기가 상어에게 물어 뜯겨서 뼈만 남았다는 이야기 아닌가? 다시 물어봤다. “그게 다냐고?...” 이틀에 걸쳐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노인과 함께 돛에 바람을 가득 채우고 새벽 바다냄새를 맡으며 먼 바다로 나갔다. 푸르스름한 아바나 해안을 뒤로 한 채, 노인은 꾸준히 노를 저었다. 노인은 무지개빛 비누방울 같은 모습의 해파리들을 보면서, 아름답지만 가장 위선적인 존재라고 일러주었다. 또한 노인은 청새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청새치 수놈은 말이다, 언제나 암놈이 먼저 먹이를 먹도록 양보하지. 어느 날 암놈이 낚시에 걸렸는데 말이야, 낚시줄 주위를 넘나들며 암놈 곁을 떠나지 않는 거야. 암놈을 갈고리로 찍어 배 위로 끌어올렸는데도 수놈은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한참을 서성거렸지. 그러다가 내가 낚시줄을 정리할 때쯤, 수놈은 배 옆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 올라 암놈이 있는 자리

를 한번 바라보고는 깊은 물속으로 사라져갔지.” 잠시 검푸른 바다를 응시하던 노인은 말을 이었다. “참 아름다운 놈이었지. 끝까지 암늬 곁을 안 떠나려고 했어.”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노인은 자신의 배보다 더 큰 물고기와 몇 시간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물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며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노인도 줄을 등에다 감은 채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놈은 힘이 대단한 물고기야. 낚싯바늘이 주둥이 한 귀퉁이에 박혀있고 놈이 그 위로 주둥이 딱 다물고 있는 걸 난 분명히 봤어. 하지만 놈한테 낚싯바늘이 주는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굶주림의 고통,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와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겠지.>(80p) 노인이 바다로 나온 뒤로 세 번째 태양이 떠오르던 날이었다.

<그러자 물고기는 죽음을 몸에 담은 채 마지막 활기를 짜내어 자신의 엄청난 길이와 넓이, 그리고 굉장한 힘과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한껏 드러내면서 수면 위로 높이 솟구쳐 올랐다.>(98p)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노인은 물고기를 향해 달려드는 상어들과 사투를 벌여야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물고기 또한 머리만 남겨둔 채, 살점은 거의 뜯겨져 나갔다.

<한놈이 드디어 물고기의 머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노인은 이제 끝장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키 손잡이로 상어의 대가리를 후려쳤다. 놈의 아가리는 잘 뜯기지 않는 물고기의 머리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노인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후려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는 부러진 손잡이 끝으로 상어를 찔렀다. .... 물려왔던 상어 때 가운데 그놈이 맨 마지막 놈이었다. 놈들이 뜯어먹을 게 더 이상 없었던 것이다.>(12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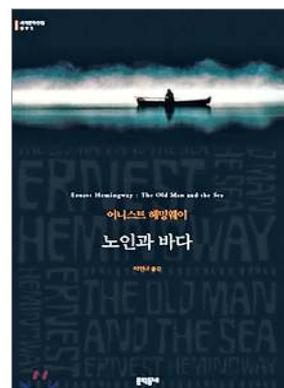
을 여름을 보내면서 한층 더 무력해졌다. 바이러스는 점점

더 지독해졌고 해결책은 갈수록 버거워졌다. 이쯤 되면 슬슬 한계상황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은 지나간다고 해도, 언젠가 더 센 놈이 들이닥칠 게 뻔하다. 결국 한 개인이 맞서 싸워야 할 일만 남은 듯 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약해졌다. 걱정은 많아졌고 두려움은 커졌다. 투쟁심보다 안일함이 커지고 행동보다 주저함이 늘었다. 그런 마음으로 노인과 함께 먼 바다로 나갔다 돌아왔다. 땀이 흥건했고 온몸이 빼근했다. 그러나 이제 는 살아남을 것 같았다.

책을 읽었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그려지는 조각그림 같은 것이 아니다. 책을 읽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 책 읽어보세요.”라고 선뜻 내어줄 수 있어야 하고, 이 책이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망정 바꿔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도저도 아니라면 한번이라도, 어느 문장 한 줄에, 어느 단어 하나에 울컥해봤어야 한다.

<떠나고 싶은 자 /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 침묵할 것.>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 첫 구절이다. 작가는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주워 담고 다시 버려져서 너털너털해진 ‘사랑’, 그 사랑에 목이 매였으리라. 그래서 저렇게 침묵하라 했거늘.

취미가 독서라고 했던 나의 독서법은 어떠했는가? 마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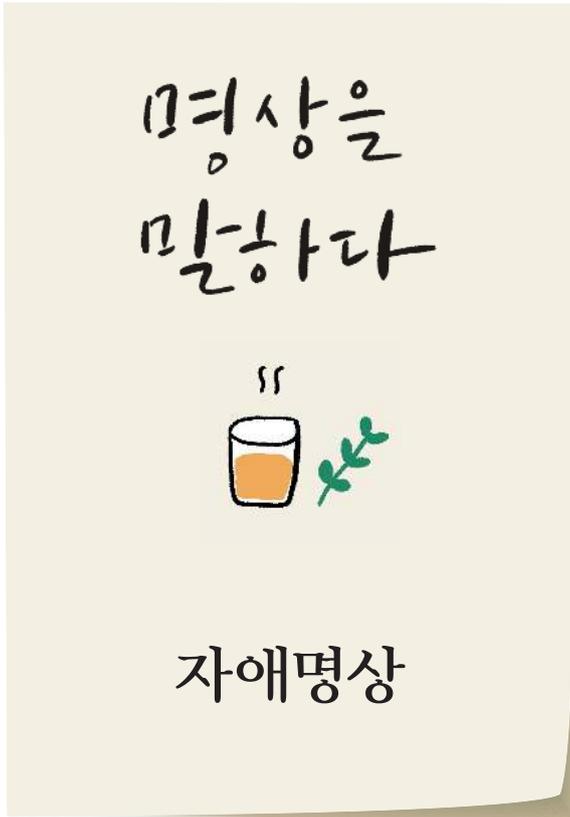


소금밭인데 눈알만 책갈피를 데굴거리다가 해설픈 입방정만 털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부끄러웠다. AF

『노인과 바다』  
저자 어니스트 헤밍웨이  
출판사 민음사



글쓴이  
『월간에세이』 편집위원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던가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누군가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행복을 기원할 때, 여러분의 마음 역시 평화롭고 고요할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 이와 같습니다.

자애명상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얻어가는 명상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함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만이 알고 있는 많은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는 타인에 대해 고마워 하며, 그런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기꺼이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종합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250명의 환자들을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집단과 그런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연구대상이 된 환자들은 연구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구 결과, 기도를 받은 집단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환자들보다 평균 5일 일찍 퇴원했고 더 적게 감염되었으며 여러 질병에서 보다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이 연구결과를 이해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해하고 여러분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믿는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상이 성장하고, 한 사람이 피폐해지면 온 세상도 그만큼 피폐해질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나의 마음이 편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편할 겁니다. 나와 타인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애명상은 결국 온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제가 그간 이야기해 온 마음챙김 명상이 ‘지적’인 명상이라면, 자애명상은 ‘감성적’인 명상으로서 마음챙김 명상을 보완하고 마음의 폭과 너그러움을 키우는 명상입니다.

이제 간단한 자애명상을 해 보고 이야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애명상의 기본원리는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나갔다가 다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걸로 마치는 것입니다.

- 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릴랙스 합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3번 하면서 스스로에게 명상이 시작됨을 알려 줍니다. 마음속으로 아래와 같이 말하며 그 이미지를 그려 봅니다.
- ② “내가 적의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늘 자유롭기를.”
- ③ “어머니가 적의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어머니가 늘 자유롭기를.”
- ④ “아버지가 적의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아버지가 늘 자유롭기를.”
- ⑤ “아들(딸)이 적의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아들(딸)이 늘 자유롭기를.”
- ⑥ “친구들이 적의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늘 자유롭기를.”

⑦ “내가 적의에서 벗어나고, 번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늘 자유롭기를.”

⑧ 몸과 마음에 자애의 느낌이 가득하도록 잠시 머물렀다가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애의 마음을 보낼 대상을 선택하여 자애명상을 더 진행하면 됩니다.

자애명상은 항상 자신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자애의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에 대한 자애명상을 거쳐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자애명상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임종에 가까워진 소설가 울더스 헉슬리에게 그간 많은 영적 스승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을 때, 헉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다만 친절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자애명상을 통하여 우리는 나와 타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더 큰 이해심과 연민과 사랑의 감정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애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가슴을 부드럽게 열리도록 합니다.

자애명상을 통하여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내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AF



###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츠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 영화로운 나날



## 시절인연을 기다리는 당신을 위해

밤이 되도 가실 줄 몰랐던 더위는 ‘입추’를 시작으로 조금씩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나의 체온만으로도 버겁던 여름이 끝나고 인연의 온기가 그리워질 겨울이 오기 전, 미리 마음을 덥혀줄 영화가 필요할 때 저는 『침밀밀』을 찾습니다. 아는 게 많은 이요(장만옥)와 아는 게 너무 없는 소군(여명)은 타지가 아니었다면 서로 마음이 통할 일이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상하이 토박이 소군과 광저우 출신 이요는 홍콩에서 만납니다. 돈이 제일이며 돈만을 믿을 수 있는 이요는 어리숙한 소군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지만 이내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소군은 알면서도 이요에게 속아줬고, 이요 역시 그런 소군에게 마음을 엽니다.

중국 본토에서 건너와 홍콩이라는 낯선 땅, 자유경제라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고단함을 공유한 이들은 단순한 고향 사람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요와 소군처럼 긴 세월을 건 인연을 만나보진 못해서 그들의 사랑은 잘 모르지만 이요와 소군의 타향살이에 대해서라면 잘 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고 자란 곳을 떠나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저를 지배했던 감정은 사실 외로움보다는 긴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늘 긴장 상태였죠.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사투리를 쓰지 않기 위해, 압구정동이 어디인지 모르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이요 역시 광둥어를 쓰고, 본토에서 온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덕분에 소군에게 “당신 스타일도 그렇고, 옷이랑 말투도 그렇고 엄청 홍콩스러워요.”라는 말을 듣지만 이요와 소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홍콩 사람이 아니라는 것ですよ. 두 사람을 묶어준 것은 그런 동질감이겠지요. 이요와 소군은 고향을 떠나와 계속 떠돕니다.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그리고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요가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홍콩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들은 언감생심 집을 사는 것을 꿈꿀 수도 없는 도시가 되었고, 저 역시 이제 고향에서 산 날보

다 타지에서 산 날이 더 많아져갑니다. 그래도 영화속 두 사람의 사랑만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은 것이 위로라면 위로겠지요.

1986년 홍콩은 지금의 홍콩과 많은 것이 다릅니다. 당시의 홍콩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감돌던 시기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지로 이탈하는 원주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펴기 전인 중국 본토에 비하면, 여전히 홍콩은 ‘기회의 땅’이었죠. 이요와 소군 역시 홍콩 드림을 꿈꾸며 본토에서 이주해왔는데 영화에서 그 홍콩 드림을 상징하는 것이 맥도날드입니다. 이요가 일하는 햄버거 가게는 자본주의와 자유경제의 상징과도 같죠.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파는 곳. 그 환상을 먹고 이요는 일을 하고 또 합니다. 투잡도 모자라 쓰리잡까지 뛰는 이요는 바쁜 와중에도 줄을 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군과 만납니다. 뜨거운 여름 밤, 주변은 소란스럽고 낭만이라고는 한 톨도 캐내기 힘들지만 자꾸만 가까워지는 두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군에게는 고향에 두고 온 약혼자가 있고, 홍콩에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이요에게 연애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둘은 만날 때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친구임을 상기시키죠. 가끔 서로를 동무, 동지라 부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이방인임을 공유하는 것처럼 친구라고 부르며 서로의 죄책감과 거짓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스스로에게도 속이며 예정된 파국을 자꾸만 유예시키는 연인의 안타까움은 인연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건 살면서 딱 한 번 배우는 게 맞더라고요.” 자꾸만 엇갈리는 인연 끝에 뉴욕으로 이주한 소군은 여자를 소개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였다

가 연인이었다가 이도저도 아닌 관계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요와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며 그를 놓지 못했던 소군이 이요를 놓던 순간이 바로 이 때가 아닐까요. '시절인연'이라고 하죠. 모든 사물의 현상이 시기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이 불교용어는 쉽사리 인연을 놓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 만들어졌을 겁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는데, 오는 시기를 놓치고 가는 시기를 붙잡았던 이요와 소군은 곁에 사람을 두고도 서로를 그리워했죠. 『침밀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특정한 시절이나 인연을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소군의 고모 로지는 윌리엄 홀튼과 데이트했던 저녁을 평생 잊지 못하고 내내 복기합니다. 소군은 이요와 함께 했던 시절을 매일이 새롭고 재밌었다고 기억하죠. 이요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뒷모습만으로 소군을 알아볼 정도로 그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구요. 하지만 그 시절은 어떤 식으로든 끝났습니다. 고모가 죽고, 소군과 이요를 이어준 등려군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그리고 소군이 이요를 마침내 마음에서 보내고 나서야 두 사람의 인연은 다시 시작됩니다. 놓아야 붙잡을 수 있는 건 사랑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봅니다. 이요와 소군은 지금쯤이면 소군의 고모처럼 지긋한 나이가 되어있겠네요. 둘은 여전히 함께 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서로 다른 곳을 헤매고 있을까요. 많은 것이 변해 버린

홍콩에 있을까요, 여전히 뉴욕에서 등려군의 노래를 듣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랜 시간 엇갈렸던 인연이 제자리를 찾았길 바랍니다. **AF**



영화 『침밀밀』



### 글쓴이

영화에 대해 쓰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화 속의 멋진 여성 캐릭터와 그보다 더 멋진 주위의 여성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 TREND

## 트 렌 드 가 보 인 다

## 코로나 고통 분담으로 브랜드의 격을 높인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긴 터널은 브랜드에게도 힘든 시간입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들은 소비자와 접촉하기 위해 오프라인 마케팅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마케팅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기일수록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고객을 좇지 않고 브랜드가 꼭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면 고객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불황의 위기에서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기업들은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매출 제로의 술집(Bar)을 광고 사업에 참여시킨 하이네켄

2020년 코로나 봉쇄 지침으로 유럽의 술집(Bar)들은 폐점 위기에 직면합니다. 문을 닫는 술집들이 늘어나자 하이네켄 본사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지역 술집들은 하이네켄을 구매해 주는 최초 고객이므로 그들의 폐점은 하이네켄 본사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이런 시점에 하이네켄을 담당하는 이탈리아의 광고대행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하이네켄은 로마, 베를린 등의 교통 거점에 대형 옥외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교통 거점 옥외광고는 광고비가 높은 편이죠. 이탈리아 광고대행사는 비싼 옥외광고를 중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출입문 광고(Shutter Ads)’를 선보입니다. ‘출입문 광고’란 셔터를 내리고 있는 술집 출입문에 하이네켄이 광고를 걸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이네켄이 매출 제로인 동네 술집을 돕는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바르셀로나, 밀라노, 베를린 등의 술집에서 광고를 걸겠다고 신청이 쇄도하고, 광고를 내건 5,000여 곳의 술집은 광고비를 받게 됩니다. 출입문 광고 프로젝트는 폐업의 위기에 빠진 술집들을 희생시키고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로 유럽 전역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네켄은 ‘2021 칸 크리에이티브 광고 어워드’에서 그랑프리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버거킹이 선보인 지역 식당 홍보 캠페인



하이네켄이 선보인 출입문 광고(Shutter Ads)



버거킹의 감자 농가 돕기 캠페인

### 감자농장의 영업사원, 동네 맛집의 광고사원으로 변신한 버거킹

두 번째는 프랑스 버거킹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던 2020년 봄, 프랑스 버거킹은 매장에 감자를 제공해오던 감자농장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식당들이 문을 열 수 없다 보니 농장들의 판매처가 막힌 것입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버거킹은 사업 파트너인 농가를 돕기 위해 스스로 영업사원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가로부터 감자 200톤을 선 구매합니다. 그리고 버거킹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1kg의 생감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감자를 넣은 봉지에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해 더 많은 감자를 소비해달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이마트의 못난이 감자 사례처럼 ‘맛남의 광장, 프랑스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자 농가의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버거킹이 이번에는 동네 식당을 위한 광고사원으로 변신합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동네 식당들이 문을 닫고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버거킹은 이런 광고를 게재합니다. “세상에서는 와퍼(버거킹의 주메뉴)만큼이나 맛있고 훌륭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식당 문을 다시 열 때까지 버거킹은 SNS 채널에서 그들의 음식을 홍보하겠습니다”.

흥미로움을 넘어 감동적인 광고 캠페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역 식당들이 자신의 메뉴를 홍보하기 위한 관련 콘텐츠와 #whopperandfriends라는 해시태그를 올려주면 버거킹이 33만 명의 SNS 채널 팔로워들에게 무료로 광고하는 캠페인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생각의 태도에 감사하다”라는 반응과 “경쟁사인 맥도날드를 매출로는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철학은 이미 앞서고 있다”라는 등의 칭찬들이 쏟아졌습니다.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은 풍요로운 호황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든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브랜드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시기보다 어려운 시기에 옆에 있어 준 친구처럼 브랜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AF**



#### 글쓴이

홍보회사 플랜얼라이언스 대표. 국방부 장병사랑 캠페인, 인천공항 브랜딩 캠페인, 아디다스, SKT 등 국내외 브랜드의 통합 캠페인을 20년간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 값은 71년 전 이미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값을 물어보신다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같은 분에게 많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중에 작은 부분을 갚으러 온 것뿐입니다.”

사진 작가 라미 씨는 2017년부터 전 세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찾아 그들을 촬영하고 액자로 제작해서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프로젝트 솔져(Project Soldier)’입니다. 제작한 액자를 전달할 때마다, 참전용사들은 고마워하며 얼마를 내야 하나고 묻습니다. 라미 작가는 전쟁에서 보인 그들의 희생이 액자값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갈 때가 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작은 포옹을 나누고, 참전용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포화가 멈춰진 날입니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1951년,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회담을 제안하였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유엔 참전국 및 의료지원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은 2013년 7월 27일, 처음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이 제정되었고, 올해로 9주년을 맞습니다. 이후 매년 7월 27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참전유공자와 참전국 외교사절을 초대해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군대를 파병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까지 총 16개국이었습니다. 34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4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서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일뿐더러, 마음에 내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의 부름에, 자신의 신념에 응답하였고, 용기 있게 적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전쟁 참전용사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그리고 어느 회사원으로 기억되기보다 참전용사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존경받을 것입니다.’ 부산의 유엔평화기념관 ‘프로젝트 솔저’ 기획전시실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수호한 대한민국은 전쟁을 딛고 훌륭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6·25 전쟁에 희생된 수많은 참전용사의 아픔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를 기억합시다.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오늘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나갑시다!** AF



# 공군인의 편지

글 | 병장 박민우(15특수임무비행단 장비정비대대)

## 멍하니 땅만 보다가

멍하니 땅만 보고 걷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참 맑고 푸른 하늘이 인사를 건넵니다.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으니 부모님과 형을 뒤로하고 입대한 작년 2월 10일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네요. 그날은 누군가에겐 그저 출고 받았던 평범한 날로 기억되겠지만 저에겐 특별하면서도 힘든 시작의 순간이었죠.

별거 아니라고 부모님 앞에서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입대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긴장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처럼 심각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저였기에 비록 입영식은 취소되었지만 수료식 날에는 멋진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긴장한 제 자신을 달래고 달래며 꾀득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확산으로 수료 외박까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날만큼은 참으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이토록 길었던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15특수임무비행단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봄과 여름이 지나고 사계절이 바뀌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지금, 지난 2년을 돌아보니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음을 깨닫고 더욱 아쉬움이 밀려오네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질 줄 알았으면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나는 왜 그동안 멍하니 땅만 보고 걸으며 부모님께 편지 한 통 없이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지 후회스러운 생각에 더더욱 마음이 시려집니다.

전역을 앞둔 이제서야 사랑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남부럽지 않게 저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때로는 철없는 응석도 받아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주신 것은 물론,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믿으며 응원해주신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이 되어서야 늦은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군부대에 있는 저를 늘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그동안 꼬적인 작은 글씨들을 모아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부모님! 저는 남은 시간마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며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면서 제 몸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고개를 떨구고 멍하니 땅만 보는 아들이 아니라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막내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sup>AF</sup>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 책읽는 공군

글 | 중위 강금구(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

## 네 자신을 알라

### - 괴짜처럼 생각하라

이 책 『괴짜처럼 생각하라』를 비롯한 괴짜 시리즈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합니다. 이름부터 특이하죠. 괴짜라니. 무심코 책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세계 3대 성인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의 명언 “네 자신을 알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유명한 강의에도 종종 언급되는 이 말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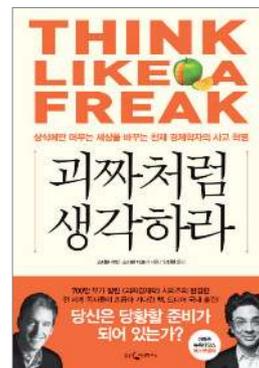
이 책은 영어에서 가장 말하기 힘든 세 마디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 세 마디는 바로 “I don't know”입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하기 꺼립니다. 어떤 것에 대해 모른다고 했을 때 이어지는 타박이 두렵고, 무능한 군인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합니다. 모르는 게 잘못된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 채 배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유의미한 학습은 불가능합니다.

모른다는 것과 관련해 이 책이 소개해주는 또 다른 교훈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전실력을 평가하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이 자신의 운전실력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자신이 어떤 것에 유능하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유능할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는 경우, 특히 군대에서 인

명피해나 물적피해 등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명확히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명언의 진위는 “어떤 것을 모르는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자신이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지금까지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른다는 것은 겸허히 모른다고 말하고, 그 뒤에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의 한 부분만 소개했지만,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읽는 이로 하여금 틀에 박힌 생각에 자유를 부여하고 소위 “괴짜”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주제들을 통해 생각의 창을 넓혀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AF**



『괴짜처럼 생각하라』  
스티븐 레빗, 스티븐 디브너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 여유

지난 8월 온 국민을 웃고 울렸던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흔히 올림픽이 끝나면, 메달을 딴 선수에게 모든 조명이 집중되지만, 나는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독 강력한 메달 후보였지만 메달 획득에 실패한 선수들에게 눈길이 갔다. 덤덤하게 다음 올림픽에서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선수, 씩씩한 눈물을 흘리며 실패를 아쉬워하는 선수. 인터뷰 자리에서 모두 반응이 제각각이었다. 그 중 한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 “첫 올림픽 무대에서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다른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올림픽에서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이른 시기에 탈락했다.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갖춘 그 선수에게 가장 큰 패인은 바로 여유 부족이었다.

여유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물질·공간·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없는 상태, 외적인 여유를 가리킨다. 둘째,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혹은 느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즉 내적 여유를 가리킨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두 가지 여유가 모두 없다고 생각한다. 매일 쏟아지는 업무, 모래처럼 사라지는 돈, 나만의 공간조차 둘 수 없는 형편에 ‘삶이 팍팍하다.’ ‘바빠서 정신없다.’는 말이 자동으로 입 밖에 나온다. 이처럼 첫 번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두 가지 여유는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 주변에서 보기에 외적인 여유가 없어도, 내적으로 여유 있

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 일상에서 조금은 떨어져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성찰하고 바라볼 줄 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여유 없는 사람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성과와 만족감을 누리며 산다. 그 비결은 쉽없이 몰아치는 사회 속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와 방향을 유지하는 데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선수에게는 반대로 좋은 실력이라는 외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내적 여유가 없었기에 기대했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었다. 심적인 부담이 선수를 초조하게 만들고 결국 잦은 실수로 이어져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공군인 한 명 한 명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초조함에 가능성을 놓치고, 좌절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게 된다.

더 빨리 더 많이를 요구하는 사회,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우리에게 여유는 마치 사치처럼 변해버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여유를 갖는다면, 어려운 상황보다 우리의 목표와 가능성을 더 먼저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면, 오늘 하루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고 잠시라도 나를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실 새 없이 업무 처리에 매진하는 하루보다, 잠깐이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는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의미있게 다가올 것이다.<sup>AF</sup>

# 마음의 소리

## 김양순

jbkys10\*\*@naver.com

공군 가족 김양순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와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간 공군에서도 다루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요즘 환경문제에 대해 공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소규모 도시와 같은 비행단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수천 명이 사는 곳이니 당연하죠. 저는 군인들이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힘을 키우는 것만큼 환경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AF. 좋은 소재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연

hno050\*\*@naver.com

2년 전에 월간 공군을 처음 접했는데, 처음과 같은 코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독자 입장에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매달 공군의 역사와 세계 공군의 역사, 또는 외국에서 운용하는 전투기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호 표지는 태극 문양에 우리 전투기들이 여럿 보이며 아름다웠습니다. 또, 사관생도 군사훈련이 특집기사로 실렸는데, 부사관이나 훈련병들의 훈련 내용도 궁금해졌습니다. 8월 공군인의 편지 코너도 인상깊었는데요. 가족의 소중함과 그리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F. 건설적인 제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개편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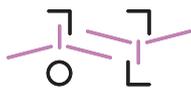
cosmic\*\*@naver.com

조종사의 달을 맞아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다 바친 선배 조종사들의 위령비를 참배하는 제3훈련비행단의 모습을 보고 그간 잊고 있었던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척 감개무량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자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의 살신성의를 애국충정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AF.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국영령을 항상 기억하는 월간『공군』이 되겠습니다.)

●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http://www.afzine.co.kr))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1 9